

용화세계에 서니 속세시름 잊고...

불교문화 체험기행

법주사 · 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법주사의 법(法), 청동미륵대불은 용화세계를 발원하여 그렇게 서있다(높이 33m).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체험기행단은 15일(직지심경)의 고향 흥덕사지와 법주사를 찾아 나섰다. 두 시간 남짓 중부고속도로를 달려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최진석)에 도착했다. 박물관은 '법주사 흥덕구'라는 다소 낯익은 지명에 위치해 있었다. '흥덕'은 바로 <직지심경>이 인쇄된 흥덕사지(사적 제315호)의 이름에서 빌린 것이다. 흥정학 박예연구원이 기행단을 맞았다. 고인쇄박물관의 원관 너머로 복원된 흥덕사 대웅전 치미 지락이 보였다.

‘흥덕사’라는 절 이름이 세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도시의 해'로 지정했던 1972년부터다.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은 그 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인쇄본인 <백운화상불조지지심경요결(이하 직지심경)>을 처음으로 세간에 소개했는데, 경전 후기에 "1337년(고려 우왕 3년) 7월 청주목 흥덕사에서 주자 인쇄"라는 기록이 있었다. 청주사에서 흥덕사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13년이 지난 1985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흥덕'이란 명분이 기록된 '금구(金鉤)'를 우연히 발굴하면서 흥덕사의 실체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흥덕사 건축물을 기록한 문헌이 없어 92년 금당(金堂)만을 복원한 채 끝났다. 금당에는 흥주 대원사 대웅전의 형식을 빌려 세운 대웅전과 불상이 있었다. <직지심경>의 흔적을 더듬어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대 최고(最高) 정보기술이 사찰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은 큰 수확이다. 문헌상으로 우리나라 최초 금속활자본은 1200년대에 인쇄된 <증도기>이다. 그렇다면 흥덕사의 <직지심경>은 120여년을 가슬러 오르는 정보기술의 화신(化身)이 아닌가. 고구려의 고승 담징이 610년 종이와 먹의 일본에 전해주고, 불국사 석가탑에서 최고(最古) 목판인쇄본 부구정경대다라니경(751년)이 발굴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직지심경>에는 고려시대 최고의 정보기술을 사용해 발간했다는 유형의 가치도 있지만, 선대

의 선지식과 불교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무형의 가치도 있다. 박물관이 금당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은 <직지심경>의 진면목을 찾기 위해서다. 프랑스에 하권이 있다면 여권에게 상권이 있을테니까, 인연을 기다리기보다는 찾아 나선 것이다.

우리의 찬란한 고인쇄문화를 설명한 황정하 학예연구관은 말했다. "박물관에서는 25일까지 '고서 및 판목 특별전'을 여는 한편 <직지심경>과 관련이 있을만한 사찰 20여곳을 선정해 그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서를 뒤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모습을 바로 가리킨다'는 <직지심경(直指心經)>의 진면목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부처님의 혜안을 저버린 압장이 너무도 커서 이마 <직지>는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직지>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기행단은 오늘의 불교를 격성하며 속(俗)은 다 버리고 법(法)만 남아 머무는 속리산 법주사로 향했다.



필살도중 다섯번째 '필살수도상'입니다. 그런데 실선이 없죠. 부처님의 출가로 수행이 그만큼 합물했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법주사 필살전 경내를 안내하는 문성스님의 설명을 듣고있는 기행단

법주사 경내엔 민족의 보물 즐비 '직지심경' 고향 흥덕사지서 자궁심 고인쇄박물관 전시품 대부분 불경

법주(法住)란 법이 머문다는 뜻이다. 신라 고승 의상스님이 천축국에서 경전을 가지고 돌아와 흰 노새 등에 싣고 이 곳으로 들어와 절을 짓고 금신장유상(金身丈六像)을 모시니, 법(경전)이 머무는 법주사가 되었다.

호 서해일기(湖西第一圖) 법주사 경내로 들어갔다. 대웅보전(보물 915호)과 팔상전(국보 55호) 사이로 극락전·원종보전 등의 전각과 요사 등 그 너른 마당에 널린 것이 다 민족의 보물이었다.

용화의 세계를 그렸다는 석련지(국보 64호)가 눈에 들어온다. 큼직한 돌 연못의 조각 솜씨는 참으로 굵고 부드럽다. 그러나 아름다움도 세상의 중심을 건디 못하는 모양이다. 금가고 부처진

것을 깨닫듯이 일기살기 위해 놓았으니 보는 마음이 무상하다.

1989년 월탄스님이 주지로 재직할 때 용화정토를 발원 조성한 33m 청동미륵대불도 그 무상함을 일러주는 듯 경내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용화정토는 <미륵상생경>에 나오는 세계로 미래의 부처님이 다시라는 안양의 세계이다.

사실 미륵불은 진표유사가 776년 법주사를 중창할 때 처음 세워져 있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미륵불이 파괴되자 벽암 각성스님이 1624년 미륵불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그 미륵불도 대원군 집정 당시(1872년) 경복궁 중수를 위한 월남전 함태로 징발되어 1938년까지 연화대 석만 남아 미륵불의 자취를 전했을 뿐이었다.



법주사의 사천왕문을 넘어들면 우리보다 유일의 목조함 필살전(국보 55호)과 마주친다. 법주사 경내에는 민족의 보물이 즐비하다.



청주 고인쇄박물관 전시실에서 금속활자 목판본 등 찬란했던 고인쇄문화를 관람하는 기행단. 25일까지 흥북도서관이 열리고 있다.



흥덕사 금당. 당시 철제 니발이 발굴돼, 92년 복원된 금당에는 철문이 복원되어 있다.

1982년 시멘트 미륵불을 정안했지만, 그 미륵불도 오래 서있지 못했다. 지금의 청동미륵대불이 조성된지는 10여년 남짓 된다.

그동안 미륵불은 민족의 영광을 지켜보면서 자신에게까지 번쳐온 역사의 땅까지도 감수해내고 지금껏 풍양을 안으로 보듬어 왔다. 청동미륵대불의 진면목을 바로 천년전 진표유사가 새겼던 그 미륵불인 것이다.

불법의 비계 앞에는 이상한 석상이 있었다. 희경 보살(喜慶菩薩·지방유형문화재 38호)이다. 초광도 기법 보이지 않고 기쁘게 바라볼 수도 없는 석상의 이름이 하필이면 희경이다. 그러나 여결의 새빨간 다기(또는 향로)를 이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자 희경보살은 미학이 아닌 신앙으로 감성해야만 한다. 보살의 기원이 너무도 간절해 격렬해 보이기까지 한다.

쌍사자상(국보 5호)과 사천왕석등(보물 15호)이 토해내는 천년 세월의 숨결을 뒤돌아 금강문 관쪽 기슭에 이르렀다. 추레암이다. 원래 뒤쪽 수정봉에 있었는데 재력으로 자리를 바꾸었다가 산신에게 말보서서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바위에는 고려시대의 선각화인 마애여래의상(보물 216호)이 있다. 미소를 머금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신통법(誑法)을 짓고 있는 미륵불이다.

대해 신라시대의 고풍 양맥에 고려시대의 미륵불이라니. 법주사 경내를 안내하던 문성스님(보교목장)이 추레암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권했다. 과연 미륵불 원전에서 희미해진 '신통법'을 찾을 수 있었다. 천년의 풍상을 겪은 탓인지 신통도는 겨우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의상스님과 흰 노새였다. 그렇다. 의상스님이 가져온 법은 바로 '정토'였기에 오랜 뒤에도 미륵불이 조각된 것이다. 변하고 소멸되는 암각화 그 자체가, 그들이 남긴 정토의 법은 여기 법주사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여겨진다.

체험기행단을 태운 버스는 법주사를 벗어나 해발 8백여m 고지의 말티재를 넘어 사울로 향했다. 구름장막을 연상케 할만큼 아슬아슬한 길이 이어졌다. 과연 하늘에 흰 구름이 무심히 흘러가고, 가을 낙엽 서로 부딪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저 곳에 머문 법은 대체 어떤 경계에 있는 것일까.

글=오종욱 기자(goboc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철환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아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중추에서 피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민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원 합장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북 제천시 청태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경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안정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법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송북 제천시 청태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거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밝혀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 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는」 성분추출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통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靜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王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몸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 (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